

신정부의 정책 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

- 일 시 : 2017년 4월 7일(금) 13:30 ~ 17: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대회의실
- 주 최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한국경제연구학회, 중소기업중앙회
- 후 원 : 매일경제신문

모시는 글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5월에 출범 할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문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주제가 성장, 고용, 그리고 복지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 내적으로는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정치 경제 리더십의 실종과 기업들의 경영 위기, 조선·중공업 등의 제조업의 위기와 여기에서 파생되어 복잡하게 얽힌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여야 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고용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는 일 또한 한시가 급한 실정입니다. 외적으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정권의 출범에서 보이듯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반세계화의 흐름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무역자유화의 역행,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기의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흐름,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사드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미증유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외 경제 상황도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신정부는 이렇듯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아가갈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지 분야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일부는 재정 문제로 그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또한 이러한 재정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노인, 어린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언제나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완책 또한 신정부가 대답해야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성장, 고용, 복지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세미나에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언이 곧 출범하게 될 신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 김 동 수

프로그램

Time	Program
13:30~14:00	등록
14:00~14:15	개회사 개회사 :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 축 사 : 김용하 (한국경제연구학회장)
14:15~15:45	세션 1 : 주제 발표 사 회 : 강성호 (한국경제연구학회 기획이사) 발표 1 :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정부의 성장정책 발표 2 :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 신정부의 고용정책 발표 3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신정부의 복지정책
15:45~16:00	중간 휴식
16:00~17:30	세션 2 : 패널토론 사 회 : 김기흥 (경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토론자 : 강병구 (인하대학교 / 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 이사) 석재은 (한림대학교 / 한국노인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 경제정책본부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7:30	폐 회